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성찬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경건하게 잘 준비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몽골단기선교팀은 오늘 오후 8시에 선교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4. 이번 한 주간은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씩 아침과 저녁에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와 몽골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예배기도 담당은 신동기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이영선 집사님입니다.
6. 다음 주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전교인 여를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일정 조정 잘 하시고 온 성도가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점심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친교 나누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예배기도(오전)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오승현 집사	김환엽 집사
예배기도(오후)		파송예배	이영선 집사	배은희 집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오효근 집사 조선경 집사	김민자 집사 최순애 집사 김화연 집사	정진숙 권사 배은희 집사 차미자 집사
토요일청소		아론목장(8/5)	갈렙목장(8/12)	에덴목장(8/19)	주사랑목장(8/26)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5. 몽골 단기선교 여행을 떠나는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6. 모든 환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 장승호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오지원 집사님
7.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70번(이사야 42장) 다같이
*경배찬송	40장(통 43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44장(통 56장) 다같이
대표기도	오진석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민 29:12-40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고난, 사노라면 만납니다’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금
의
만
능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몽골단기선교를 위한 파송예배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목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502장 (통 259장)	다같이
말씀선포	‘요 21:15-19’	허영진 목사
선교지영상		청년부 영상팀
선교준비과정 소개영상		청년부 영상팀
선교사역소개		오승현 집사
특송(첫 번째)	온드랑 외 2	몽골선교팀
특송(두 번째)	광야를 지나며	이준화 집사
특송(세 번째)	파송의 노래	신그룹사운드
합심기도		다같이
찬송	516장(통 265장)	다같이
광고		인도자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담임목사님의 몽골선교사역으로 인해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담임목사님의 몽골선교사역으로 인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강해 허영진 목사

(월~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속초 가는 길’

20여 년 전 신학생 때의 일이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속초에 갈 일이 생겼다. 함께 떠나는 일행들은 굳이 승합차를 몰고서 가겠다. 운전은 내 몫이다. 평소에도 운전을 즐겨한다고 떠벌리고 다녔으니 어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한여름 오전 10시 잠실에서 출발한 우리 일행은 굽이굽이 돌고 돌아 높은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무려 4시간 30분이나 걸려 속초를 밟았다. 지금이야 서울에서 속초까지 90분이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긴 마당에 그 때의 속초 가는 길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얘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동해 푸른 바다를 보리라 마음먹으면 차에 올라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을 통과하고, 하늘 높이 치솟은 고가도로를 횡단하여 동해안까지 전력 질주할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속초 가는 길에 올랐다. 당일치기 여행이지만 들뜬 마음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불편하고 번거로우며 몸이 수고로운 과거를 좋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여행을 떠난답시고 집을 나와서는 어서 달려보라고 잘 닦아놓은 길에 올라 정해놓은 목적지만을 향해 일사천리로 달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달리고 있는가? 잿빛 도로와 빙음에 노란 불빛이 한데 얹혀 있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과 높이 가로막은 방음벽과 속도제한 표지판만을 보면서 왜 달리는가? 달리면서도 내내 이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인생은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어린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대지>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함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일이다. 그것은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다. 그것은 자신의 돌맹이 하나를 놓으면서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을 느끼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나와 무관해 보이는 세상의 비참함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걸었던 인생의 길이다. 이제 속초 가는 고속도로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우두커니 서있던 막국수 집도, 지름길일 거라 싶어 들어섰다가 마주친 시골 동네의 구멍가게도, 밭에서 막 파와서 양은술에 푹푹 삶아낸 옥수수도, 그리고 사람이 없다. 그저 그곳에는 같은 곳을 향해 경쟁하듯 달려 나가는 조바심 난 차들만 있을 뿐이다.

Written by 허영진